

# 시련의 이낙연

측근 사망 대형 악재로 최대 위기  
호남 지지율 이재명에 역전 당해  
코로나·부동산 공감 이끌어내고  
개혁·민생 입법 완수 리더십 절실  
위기 타개할 돌파구 찾을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백신 생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은 이 대표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민생은 실종되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부 여권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기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당장, 국민의힘이 추 장관도 함께 하자고 맞받아치면서 국정조사는 무산됐다. 당 내외에서는 이 대표의 참모들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비서 이모(54)씨가 지난 총선 당시 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업더머스 측에서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주변을 향한 야당의 공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말과 함께 제3후보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여론조사 지수는 하락세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3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저치였던 지난 8월 둘째 주와 같은 수준이다. 이 대표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3일)에서 이 대표(16%)는 이재명 경기지사(20%)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표 취임 전 24%(7월)였던 지지도는 8%포인트가 빠졌다.

여기에 호남 지지율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역전당했다. 이 지사가 27%로 이 대표(26%)를 추월한 것이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고 의견 유보층이 절반에 가까운 41%라는 점도 있지만 호남 출신의 이 대

표에게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선 출마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내년 3월 9일까지다. 코로나 19 대책과 부동산 문제 등에서 민심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당내 경선을 의식, 친문(친 문재인) 당원들을 의식하기 보다 보다 과감하게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의 개혁 및 민생 입법 완수가 우선 과제다. 또 시대적 개혁의 선봉에서 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도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행로 함께한 '3철 친문' 목표 출신...참여정부 민정수석 지낸 '3선 중진'

행안부장관 내정자 전해철



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정 경력을 쌓았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전남 목표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경기 안산상록갑·사진)이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행로를 함께 해 온 친문계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최측근인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경찰 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의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의가 풀린다.

전 의원은 1962년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 대성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거쳐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엔 시국 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뛰어들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왔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의문조사규명위원회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 2008년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3선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꼽혔다는 점에서 이번 입각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정 경력을 쌓았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특히 전 의원은 유년 시절을 호남과 영남에서 보냈다는 점에서 중앙-지방 및 지방 간의 균형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활이 기대된다. 특히, 전 후보자는 전남 목포가 고향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평화문의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 정부혁신, 자치경찰제 등 많은 현안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인 장선희(53) 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광주 장록습지 대한민국 1호 도심속 습지 됐다

환경부 지정...생물종 829종 서식  
광주천 등 연계 생태 관광벨트 구축

광주 장록습지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1호 도심 습지로 지정됐다. 장록습지는 올 초 국가습지 지정을 앞두고 국토부 반대(광주일보 2020년 5월 21일자 1, 3면)로 무산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지역민,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환경부는 7일자로 광주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황룡강 하류부에 있는 장록습지(2.7km)는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고 습지 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 습지로 꼽힌다. 장록습지는 그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에서 도심 내 하천이라는 점을 들어 홍수예방 사업 등 개발논리를 내세우는 바람에 국가 하천 습지 지정이 늦어졌다. 장록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속 야생동식물의 천국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3-12월 장록습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 82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삼·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생물 4종도 발견됐다. 장록습지가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진다. 습지 보전과 복원사업에는 국비 70%, 탐방로·학습관 조성 등에는 국비 50%가 지원된다. 또 습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알리는 관리센터가 들어서고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 등도 개설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장록습지 등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습지 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이 담긴다. 환경부는 또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추진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탐방로 및 관찰 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도 지원한다.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그동안 국토부 등을 상대로 장록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습지 지정을 설득해 왔다"면서 "전국 최초의 도심 속 습지라는 강점을 살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 하천인 광주천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3대 생태 관광자원 벨트'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1호 도심습지로 지정된 광주 장록습지 전경.

건강과 웰빙의 대표음식!

문화관광의 중심지  
의고장  
영암

#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쌀 골드	대봉감
명품한우	무화과
영암멜론	영암배
황토고구마	

달마지쌀 골드 / 대봉감 / 명품한우 / 무화과 / 영암멜론 / 영암배 / 황토고구마 / 황토수박